

## 가두와 서재

— 팔봉과 회월의 해방 전후

손 유 경\*

### [초 록]

이 글은 팔봉 김기진과 회월 박영희의 해방 전후 삶의 행적을 재구성하고, 가두와 서재에서 두 인물이 모색한 상이한 문화적 실천이 갖는 비평사·지성사적 의의를 밝히기 위해 쓰였다.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팔봉과 회월의 문단사·문학사를 해방 이후 논의의 중심에 놓는 표준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팔봉이 모르는 회월, 혹은 회월이 모르는 팔봉의 면면들을 새로이 조명함으로써, 향후 한국 문단과 지성계에서 발견되는 ‘문학-출판-잡지 권력’ 및 ‘非문단적 강단 비평’의 어떤 원형(原型, prototype)적 자질들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일제 시기부터 두드러졌던 팔봉 특유의 ‘거물 콤플렉스’가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굴절되었는지를 ‘애지사(愛智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제어: 팔봉 김기진, 회월 박영희, 해방 전후, 거물 콤플렉스, 애지사, 상아탑 콤플렉스, 『문학의 이론과 실제』  
‘Palbong’ Kim Gi-jin, ‘Hoiwol’ Park Yeong-hui, Before and After Liberation, Tycoon Complex, *Aejisa*, Ivory Tower Complex, *Theory and Practice of Literature*

社)’ 경영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예술과 실업 사이에서 고뇌한 팔봉의 면모는 일제 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인데,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문화 사업가로 우뚝 서려는 것은 팔봉 개인의 욕망이자 현대 한국 주류 문단인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다른 한편 일제 시기부터 꾸준히 비문단적 문학과 학술적 비평의 길을 강조해왔던 회월의 ‘상아탑 콤플렉스’는 서재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로 하여금 치열하게 글쓰기 작업에 몰두하게 하여, 회월은 1947년 『문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문학이론서를 발간한다. 『문학의 이론과 실제』는, 전향 선언문으로 널리 알려진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1934)에 담긴 핵심 내용을 확장·체계화한 이론서이나, 이 책으로 필화를 입은 회월은 급격히 위축되고 이후 문단과 학계, 출판계에서 한층 멀어진다. 문학에 대한 미학적 탐구라는 회월의 일관된 학술적 지향이 그의 친일 행위를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그의 뿌리 깊은 상아탑 콤플렉스마저 전향과 친일이라는 해석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면 우리 비평사에 남은 미학이론의 유산은 영영 소실되고 말지 모른다.

## 1. 해방이라는 종점

해방 이후 발표된 팔봉 김기진과 회월 박영희의 문학사와 회고록에는, 두 사람이 한국 근대 문학사에 동시에 등장하게 된 시기와 그 맥락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다. 배재고보 동기였던 두 사람은 “같이 문학에 뜻을 두어 서로 공부하였고 우정도 깊었”<sup>1)</sup>던 “유별나게 친밀”<sup>2)</sup>한 사이로 서로를 기억한다. 4년을 같은 반에서 수학했지만 그것만으로

1) 박영희(1959-60), 「초창기의 문단 측면사」, 이동희·노상래 편(1997), 『박영희 전집』 2, 영남대학교출판부, p. 326. 이하 『전집』으로 표기한다.

2) 김기진(1974), 「편편야화」, 홍정선 편(1988), 『김팔봉 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p. 331. 이하 『문학전집』으로 표기한다.

부족해 일요일마다 정례적으로 만나 활동사진을 보거나 함께 산보를 할 정도였다.<sup>3)</sup> 회월이 ‘백조시대’로 명명한 1920년대 초반부터 들은 자신이 먼저 시작한 활동에 상대방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인연을 이어간다. 팔봉이 『백조』 동인이 된 것은 회월의 추천을 통해서였고, 회월이 계급문학이라는 “문단의 주류”<sup>4)</sup> 형성에 뛰어든 것은 팔봉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었다. 유물사관적 견해 위에 신문학을 수립해야 한다는 자신의 취지에 “완전 합의를 보여준 동지라고는 회월 한 사람밖에 없었다”<sup>5)</sup>는 팔봉의 회고에 드러나듯, 두 사람은 중요한 시기마다 상대방의 뜻에 공명하며 그를 지지한다. KAPF 결성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회월이 카프에서 탈퇴하기까지의 십여 년 간이 이들의 공통된 전성기였고, 이 기간 동안 들은 삶의 중요한 궤적을 대부분 공유했다.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일제 말기 조선문인보국회 상무이사로 박영희를 추천한 것도 김기진이었다.<sup>6)</sup>

해방 직후에도 들은 나란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팔봉의 눈에 비친 회월이나, 회월이 기억하는 팔봉이 아니라, 제 3자인 백철의 눈에 두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3) 김기진(1956), 「한국 문단 측면사」, 『문학전집』 2, p. 92.

4) 박영희(1959-60), p. 331.

5) 김기진(1956), p. 95.

6) “일본놈 조선놈 합쳐서 만든 문인보국회—이것이 문화인들의 오직 하나인 합법 단체인데, 이 단체를 쥐고 앉는 사람이 일본놈이 된다면 이 단체는 일본놈의 단체로 떨어지는 것이고, 조선놈이 쥐고서 앉는다면 조선놈의 단체가 될 테니까, 될 수 있는 한 **우리를 가운데서 유능한 인물**이 이 단체를 쥐고서 앉아야 하겠다—이렇게 생각하고서, 맨 먼저 **주요한**을 천거했다. (중략) 주 대신 **박영희**가 두 번째로 적임자라고 추천했다.” (김기진(1964-66), 「나의 회고록」, 『문학전집』 2, p. 281) 그러나 회월이 “국민총력연맹에서는 생활이 보장되는데, 문인보국회로 간다면 그곳에선 총독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경비를 쓰는 터이니까 생활 안정이 안 된다”(같은 글, p. 282)는 이유로 거절해, 결국 팔봉 자신이 조선문인보국회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 팔봉의 반복된 회고 내용이다.

백철은 해방 다음 날인 8월 16일 당장 새로운 문학 운동의 깃발을 올리자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건 팔봉을 자신이 점잖게 만류했다고 기록한다. 본문 2장에서 후술되겠지만, 팔봉은 회월을 동반한 채 조선 문인보국회 사무실 앞에서 백철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프롤레타리아 문학 때”처럼 다시 “새로운 문학운동의 깃발”을 세우자고 제안한다.<sup>7)</sup> 그러나 팔봉과 회월은 더 이상 바뀐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없었다.

전향과 친일 경력, 해방 후 문단 내 비주류화, 그리고 문학사와 회고록 집필 등을 김기진, 박영희, 백철 세 인물의 공통점으로 꼽은 박지영은, 문단 주변부로 밀려난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던 이들이 문인으로 다시금 인정받고픈 욕망 때문에 문학사와 회고록을 집필했으리라 추측한다.<sup>8)</sup> 박지영은 특히 박영희의 문학사가 전향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적절한 텍스트라 보고, 회월이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면서 문학사를 파행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낭만적 혁명가로 부조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김기진과 백철의 1950년대 자기 서사를 분석한 김준현에 따르면, 1950년대에 이르러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가 사실상 무산되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친일 청산의 동력 자체가 사라진 한국 사회에서 김기진과 백철 같은 문인들이 새로이 문단 진입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것은 친일 경력이 아닌 카프 경력이었다.<sup>9)</sup> 이들이 카프와 관련된 자신들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방식의 특징은, 카프의 운명이 문인들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상위의 정치 세력에 의한 책동”<sup>10)</sup>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있었다.

7) 백철(1975), 『續·진리와 현실—백철의 문학생애 그 반성의 기록』, 박영사, pp. 294-295.

8) 박지영(2015), 「‘전향’의 윤리, ‘혁명’의 기억—해방 이후 박영희의 문학사 서술에 나타난 기억의 정치」, 『상허학보』 44, 상허학회, p. 479.

9) 김준현(2018), 「1950년대 전향자 문인의 자기서사 재구성 양상—김기진, 백철의 문단회고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4, 한국문학연구학회, p. 18.

10) 김준현(2018), p. 19.

위의 연구들이 보여주듯, 식민지시기에 문학적 전성기를 맞이했던 문인들이 해방 이후 남한 문단에 자리 잡게 되는 복잡한 과정을 추적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집필한 각종 문학과 자기서사들이다.<sup>11)</sup> 김윤식 역시 일찍이 팔봉과 회월의 회고 서사를 비교하면서 “참으로 상세하고 반복적”인 팔봉의 회고록은 “한결같이 사적인 기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sup>12)</sup>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절제한 회월의 「초창기의 문단 측면사」나 『현대조선문학사』는 “공적인 기록에의 가능성”<sup>13)</sup>을 보인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전자의 주관성과 후자의 객관성을 강조한 이러한 관점은 팔봉의 ‘회월 콤플렉스’나 ‘임화 콤플렉스’에 대한 김윤식 특유의 신랄한 분석이 덧붙여지면서<sup>14)</sup> 팔봉과 회월을 다루는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에서 본고가 취하는 관점은, 각자의 회고 서사에 드러난바 팔봉이 기억하는 회월이나 회월이 기억하는 팔봉의 면모도 중요하지만, 팔봉이 모르는 회월, 혹은 회월이 모르는 팔봉의 면모들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출간된 팔봉과 회월의 각종 문헌이나 회고록을 독해의 중심 텍스트로 놓는 표준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같은 시기에 이들이 착수하고 몰두한 상이한 실천들을 비중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같은 학교에서 수학한 그들이 둘만의 운명공동체를 꾸린 것처럼 우리 문단에 등장한 맥락과 배경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퇴장하는 시점

11) 강용훈(2015)의 「해방전후의 현대문학사 연구」(『한국문학논총』 69, 한국문화회)와 이미정(2017)의 「기억의 정치학과 해방 이후 한국문단 형성 과정 연구—1948~1960년의 문단 회고록을 중심으로」(『문화와 융합』 48, 한국문화융합학회) 등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12) 김윤식(1989a), 「회고록의 효용성에 대하여—김팔봉, 박영희의 경우」, 『선청어문』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 393.

13) 김윤식(1989a), p. 389.

14) 김윤식(1989b), 『박영희 연구』, 열음사, pp. 237-247.

과 양상은 드라마틱하게 다르다는 점에 이 글은 새삼 주의를 기울이려 한다. 해방 전후 팔봉과 회월은 가두와 서재에서 각각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며 모색했을까?

해방 전후라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기왕의 연구에서 그간 특권을 누렸다고 할 정도로 자주 조명된 문인은 「해방 전후」의 이태준이나 『찬가』의 임화 같은 해방기의 주역들이다. 반면 중년에 접어든 팔봉과 회월에게 해방은 인생과 역사의 어떤 ‘기점’이기보다는 ‘중점’에 가깝게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이 이처럼 해방기의 주역이 아닌 조연들의 행적에 새삼 주목하는 것은, 임화나 김남천, 이태준 등이 월북을 함으로써 남한 문단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팔봉과 회월은 이곳 남한에 상이한 삶의 궤적을 남김으로써 이후 전개되는 현대 한국 문단의 체질이나 학계의 생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리트머스지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백조』 동인에서 카프 동지로 변신하는 둘의 초창기 행적이나, 내용 형식 논쟁 당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재구성하는 논의들이 팔봉과 회월을 동시에 다루는 선행 연구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sup>15)</sup> 본고는 해방 전후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연구 시기와 관점의 이동을 꾀하려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해방 전후 팔봉과 회월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여기서 향후 한국 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목도되는 ‘문단인’과 ‘문학가’의 어떤 원형(原型, prototype)적 자질들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전향과 친일이라는 두 인물의 공통분모가 논의의 블랙홀이 아니라 관찰에 필요한 큰 틀로 기능하게끔 할 것이다.

15) 상세한 서지는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 2. 팔봉 김기진의 해방 전후

### 2.1. 팔봉의 ‘거물 콤플렉스’와 김복진

팔봉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935년 전주형무소에서 석방된 이후 주변의 권유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사에 입사하던 날부터 “붓을 꺾기로 맹서”하고 그 후 8년 간 글을 쓰지 않고 한동안 “문단과 물교섭”으로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sup>16)</sup> 그러던 그는 1944년 봄 평소 안면이 있던 경성제국대학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 교수와 만나 조선문인보국회 상무이사 선임 건을 의논하면서 문단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팔봉은 주요한과 박영희를 추천했지만 그 둘이 거절해 결국 조선문인보국회 상무이사를 맡게 된 것은 팔봉 자신이었다.

이 대목에 등장하는 가라시마 다케시는 일제 강점기 조선 문단에 깊숙이 관여했던 재조 일본인으로, 1939년 조선문인협회 결성 당시 간사 역할을 했고 그 후신인 조선문인보국회에서는 이사장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동경제대 지나문학과 출신의 경성제대 지나어문학 전공 교수였던 그는 1943년 6월부터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후 학병 동원에 앞장섰으며, 특히 가미가제 자살특공대를 미화·찬양한 “악질 중의 악질”로 기억되는 인물이다.<sup>17)</sup>

1944년 봄 가라시마와 팔봉의 만남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1950~1960년대 회고록 곳곳에서 발견되는 팔봉 특유의 ‘거물 콤플렉스’가 여기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위의 에피소드를 포함해 팔봉이 일제 시기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은, 자신을 조선 문단과 사상계의 거물로 묘사하거나 자신을 취조하는 일본인들조차 그를 함부로

16) 김기진(1958a), 「우리가 걸어온 30년」, 『문학전집』 2, pp. 175-176.

17) 윤대석(2015),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조선」,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pp. 307-310.

대하지 못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회고록 속의 팔봉은 언제나 문단의 운명을 좌우하는 ‘씨 뿌리는 사람’ ‘선각자’ ‘거물’로 그려진다. 팔봉의 회상에 따르면, 카프 1차 검거 사건 당시 그를 취조한 일본인 검사 삼륜은 “긴상은 워낙 신문사 사회부장이고 또 문사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해외에서 운동자들이 덮어놓고 찾아오기가 쉬”<sup>18)</sup>우니 자신에게 그런 정보를 미리 알려줄 것을 팔봉에게 종용한다. 카프 2차 검거 사건 당시에도 전주에서 남원으로 이송된 김복진 김기진 형제는 매우 관대한 대우를 받는데 “팔봉 김기진 씨라고 하면 중앙에서 사상계의 **큰 존재**”<sup>19)</sup>라는 고등주임의 말이 그 이유를 짐작케 한다. 동일한 에피소드가 또 다른 회고록에서는 이렇게 변주된다. “이 사람[팔봉-인용자]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거물**이기 때문에” 증거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했다는 종로경찰서 고등계 차석 H의 말이<sup>20)</sup> “김기진은 조선 사상계의 **대인물**로서 나이가 제법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sup>21)</sup> 겨우 32세여서 놀랐다는 남원경찰서 고등계 주임의 소감 등이 그 예이다. 운동계와 사상계의 ‘이름 난’ ‘큰 존재’, ‘거물’, ‘대인물’이라는 자의식은 1970년대 이후에 발표된 회고록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예의 그 종로경찰서 차석이 팔봉을 보자 “애들아, 오늘 마지막으로 **거물**이 들어왔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야. 어서 집어넣어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나<sup>22)</sup> 남원경찰서 고등계 주임이 팔봉을 “사상계의 **거물**”로 칭하는 장면<sup>23)</sup>이 여기서도 등장한다(이상 강조는 모두 인용자).

---

18) 김기진(1958a), p. 150.

19) 김기진(1958a), p. 169.

20) 김기진(1964-66), p. 223.

21) 김기진(1964-66), p. 267.

22) 김기진(1974), p. 376.

23) 김기진(1974), p. 400.



흥미롭게도, 팔봉의 이러한 거물 콤플렉스는 그가 남긴 각종 문단사와 회고록이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팔봉의 대다수 회고 서사는 육당·춘원에서 시작해 연극 운동이나 동인지, KAPF 결성의 주역들을 거쳐, 각종 신문·잡지의 발간 주체, 그리고 운동계와 사상계의 요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방대한 ‘인물의 역사’이다. 『청년 김옥균』(1936) 발간과 이후 여러 글쓰기에서 간취되는 ‘선구자 김옥균’에 대한 그의 일관된 애정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팔봉의 이러한 경향은, 시대 조류나 사조 혹은 사상의 변천, 그에 따른 창작 경향의 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회월 식 역사 서술과 뚜렷이 구별된다. 선각자 의식이랄까 선구자 정신이 팔봉을 내내 사로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따라서 팔봉이 재구성한 역사에서는 영웅적 개인의 결단과 그들의 네트워킹 능력이 변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그려진다.

‘거물’이라는 주변의 명명과 그에 대한 팔봉의 자의식이 중요한 것은, 일제 말기 팔봉의 친일 행위 역시 조선 사회의 거물이 필연적으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중책이었다는, 논리 정연하게 맥락화된 서사가 이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라시마 다케시가 제안한 조선문인보국회 상무이사직은 거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반복된 그의 서술에 따르면, 해방 직전 팔봉은 대동아문학자대회 참가 차 춘원과 함께 남경으로 떠난다. 그 기회를 이용해 조선문인보국회를 등에 업고 신간회와 유사한 합법적 민족 단체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상해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벌이던 그는 6월 말 평양현병대에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되나, 증전(曾田)이라는 한 일본인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레퍼토리이다. 김준현은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공방이 1950년대에 전혀 벌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sup>24)</sup> 이는 인민재판 현장에서 기사화생한 팔봉이 한국전쟁 당시 중군작가단 부단장으로 참전

한 후 반공 작가로 갱생한 일련의 사정을 떠올려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팔봉의 일제 시기 좌익 경력은 인민재판이라는 극적 사건과 종군작가 부단장 경력에 의해 거의 지워졌고, 이후 그가 주로 ‘관리’해야 했던 친일 경력은 종교적 주문(呪文)에 가깝게 반복되는 그의 회고 서사를 통과하면서 독립 운동 경력으로 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무망한 일종의 전설처럼 굳어진다. 이 친일 관련 서사 속에서도 팔봉은 춘원에 맞먹는 거물이다.

팔봉의 이러한 ‘거물 콤플렉스’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은 그의 형 김복진의 존재이다. 팔봉은 형 김복진이 사회주의자들을 제대로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다가 오히려 그 이론에 사로잡히게 되어 철저한 무산 계급 예술론자가 되었다고 기록한다. 김복진과 관련된 기억에서 또한 가지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소는 내용형식논쟁 당시에는 자신의 형이 공산당 간부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가<sup>25)</sup> ML당 사건으로 김복진이 검거될 당시 맹장염으로 가석방된 이성태를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시키는 과정 등을 겪으며 두 사람이 당원이었다는 사실, 특히 김복진이 당의 중앙위원이며 경기도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sup>26)</sup> 이밖에도 회고록 곳곳에서 팔봉은 고경흠, 서인식, 김사랑 등을 배후에서 물심양면 도왔던 자신의 공을 숨기지 않는다.

당 중앙위원 김복진을 영혼의 단짝으로 두었다는 사실은 팔봉이 왜 뱃속 깊은 ‘거물 콤플렉스’를 지닐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김윤식이 지적한 팔봉의 ‘박영희 콤플렉스’나 ‘임화 콤플

24) 김준현(2018), p. 24.

25) “내가 그때 내 형님이나 이성태가 공산당 간부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김기진(1956), p. 103)

26) 김기진(1958a), p. 149; 김기진(1964-66), p. 206; 김기진(1973), 「카프 문학과 회월의 인간」, 『문학전집』 2, p. 546.

플렉스<sup>27)</sup>는 그의 ‘거물 콤플렉스’에 견주어 그 비중이 좀 낮게 다루어져야 할는지 모른다. 적어도 위에서 재구성된 팔봉의 면모는, 회월이나 임화에게 공격 받고 자존심을 구긴 한낱 ‘정객’이라기보다, 누구보다 뒷배 든든한 사상계의 명사(名士)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팔봉의 위상을 이렇게 재조정해서 관찰하면, 해방기에 그가 남긴 행적의 개인적·역사적 의미를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내용은 그것이다.

## 2.2. ‘거리의 인쇄업자’라는 주류 문단인의 한 원형(prototype)

‘거물’ 팔봉에게 “벼락같은 해방”은 “그 후 모든 비극”의 서막을 연 “혼란” 그 자체로 기억된다.<sup>28)</sup> 해방이 혼란이자 위기로 인식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해방이 되자 팔봉은 자신의 친일 경력을 의식해 스스로에게 ‘근신 처분’을 내리고 또다시 붓대를 꺾었다는 서술을 되풀이한다.<sup>29)</sup> 즉 해방 후 3년간 스스로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가 1948년 8·15에 1년을 연장하고, 1949년 8월 15일에 또다시 1년 연장을 ‘언도’하여 “거리의 먼지 속에 파묻힌 일개 인쇄업자”<sup>30)</sup>로 지냈다는 것이다.

해방 후 팔봉은 배재학당시절 그를 “끔찍이 사랑”했던 아펜젤러 교장이 미군정청 고문관으로 부임하자 그의 권유로 대성당인쇄소를 인수해 애지사(愛智社)라는 인쇄소를 설립한다.<sup>31)</sup> 이 간판은 ML당 사건

27) 김윤식(1989b), pp. 237-247.

28) 김기진(1958b), 「우리가 걸은 길—문인이 겪은 해방·건국·동란」, 『문학전집』 2, pp. 111-112.

29) 김기진(1958a), p. 184; 김기진(1965), 「나의 인생과 나의 문학」, 『문학전집』 2, p. 449; 김기진(1954), 「심두잡초」 <후기>, 『문학전집』 6, p. 112.

30) 김기진(1958a), p. 184.

31) 김복희(1995), 『아버지 팔봉 김기진과 나의 신앙』, 정우사, p. 53.

으로 복역했던 형 김복진의 출소 후 팔봉이 그와 함께 차렸던 인쇄소 이름 ‘애지사’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당시 형은 ‘전과자’이고 자신은 ‘무직자’인 상황에서 팔봉은 김복진의 출옥 직후 조선일보 서무국장 김웅권과 함께 평남 안주 운곡으로 내려가 광산업에 손을 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온 팔봉에게 김복진은 “네 광산은 이 책상 위에 있다!”면서 공부하고 글 쓰는 일에 함께 전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한다. 의기투합한 형제는 맨손으로 잡지 『청년조선』(1934. 10)을 발간하고, 창간호를 낸 후 팔봉이 최창익의 주선으로 축하 광고 모집을 통해 7,000원을 마련하자, 그 돈으로 둘은 인쇄공장을 차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인쇄소 영업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두 사람 모두 경기도 경찰부에 체포되고 마는데, 러시아 공산당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인쇄소를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 심문의 골자였다. 우여곡절 끝에 둘은 석방되지만 그 와중에 인쇄소 일을 맡았던 최창익의 동생이 인쇄소 시설을 팔아먹고 달아나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부채 1천 원을 짊어진 채 둘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간다.<sup>32)</sup>

1940년 형 김복진의 안타까운 죽음 후 해방을 맞이한 김팔봉이 자신에게 문필가로서의 근신 처분을 내린 대신 착수한 사업이 바로 인쇄소 경영이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팔봉이 해방 직후 곧바로 ‘먼지에 파묻힌 일개 인쇄업자’로서의 삶을 택했던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백철의 기억에 따르면 그러하다.

그날, 그러니까 16일 오후 네시경 신문사로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팔봉으로부터였다. **팔봉도 펑 흥분해서 떨리다시피하는 목소리였다.** 곧 좀 만나자는 것이었다. 다들 모여서 **새로운 문학운동의 깃발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그래 지금 어디서 전

32) 김복진·김기진의 인쇄소 애지사 설립 전후의 사정은 김기진(1958a), pp. 164-166; 김기진(1964-66), pp. 260-269; 김기진(1974), pp. 394-405.

화를 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지금 문인보국회 자리에서 **회월과 같이** 전할 걸고 있는데 문인보국회라는 간판은 어제 오후에 벌써 떼어버리고 그대신 이젠 새로운 우리 간판을 갈아붙이고 새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오?”하고 **팔봉은 프롤레타리아 문학 때에 많이 쓰던 ‘새로운 술은 새로운 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을 붙였다. 그때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감상은 조금도 팔봉의 말을 불신하고 싶은 것은 없었다. 팔봉이 말하는 그대로의 심정이라고 공감할 하면서도 어딘지 성큼 ‘그렇게 하십시오. 내 곧 가지요.’하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우선 내 개인의 양심의 저항이었고, 둘째는 **팔봉이나 회월의 입장이 그렇게 당당하게 앞장서서 새 간판을 내세울 계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학운동의 모델리티 가튼 것이었다. (중략) 문인보국회의 일 같은 것을 누가 맡아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 (중략) 팔봉 같은 사람도 사실은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그 일을 맡은 것이라.<sup>33)</sup> (강조-인용자)

해방 다음 날 팔봉이 회월과 함께 흥분하여 백철에게 전화를 거는 위 장면을 보면, 팔봉이 자발적으로 앞질러 스스로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가보다는 시대가 더 이상 문필가 김팔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고 보는 편이 나올 듯하다. 실제로 1945년 8월 16일에 대한 팔봉의 회고에는 자신이 백철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대신 자신의 결단으로 조선문인보국회 사무실을 임화 등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어 흥미롭다. 위 인용문(백철의 자서전)과 아래 인용문을 비교해보자.

8월 16일 아침에 원서동 여운형씨 댁에 갔다가 문보[조선문인보국회-인용자] 사무실에 나와 앉았더니 학생 하나가 심부름을 와

33) 백철(1975), pp. 294-295.

서 불러내기에 밖으로 나가서 박희도의 동양지광사 편집실에서 현민과 임화를 만났다. 임화가 나를 보고 문보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쓰도록 빌려주면 문학자협의회 같은 것을 조직하기 위한 사무를 보고 싶다는 청을 하기에 나는 그럴 것 없이 8·15 동시에 문보라는 존재는 자연 소멸된 것이니까 **내가 그 사무실 전체를 양도하는 터이니 너희들이 사용하라고 대답했다.** 이래서 종로 한청빌딩 4층이 해방 후 좌익문학가동맹의 사무실이 되고 만 것인데, 그날 현민은 임화와 함께 오기만 했을 뿐 그저 웃는 낯으로 아무 말도 안했다.<sup>34)</sup> (강조-인용자)

팔봉의 회고에는 누락되었고 백철의 자서전에는 포함돼 있는 위의 디테일(전화 통화 내용)에 유념한다면, 팔봉이 예전처럼 문단의 주류나 사상계의 거물 노릇을 하기 어려워진 시대상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먼지에 파묻힌 인쇄업자’라는 팔봉의 자기규정에는 자긍심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251 소재 출판사 애지사 사장으로서 팔봉은 해방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한다. 우후죽순 격으로 수많은 출판사들이 생겨난 해방기에는 팔봉 말고도 출판사를 직접 운영한 문인이나 학자들이 을지로 주변에 꽤 많았다.<sup>35)</sup> 먼저 애지사에서는 정가 3원의 주간 잡지 『신태평양』을 얼마간 발행했다. 원래 『신태평양』 창간호는 신태평양사 윤치영에 의해 1946년 6월에 발행되었는데<sup>36)</sup> 12호까지는 신태평양사에서 나오다가 13호부터는 애지사에서 발행된 것

34) 김기진(1970), 「일제 암흑기의 문단」, 『문학전집』 5, p. 163.

35) 오영식 편저(2009),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출판, p. 23.

36) 오영식 편저(2009), p. 619. 윤치영(1898-1996)은 일제 시기 미국 유학을 다녀와 이승만 측근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인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내무부장관을 지낸다. 이승만을 대신하여 『신태평양』 주필 겸 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윤치영의 일대기에 관해서는 윤치영(1991)의 『윤치영의 20세기—동산 회고록』(삼성출판사)을 참고할 것.

으로 확인된다.<sup>37)</sup>

팔봉과 같은 날 인민재판을 받았던 애지사 문선과장 전재홍<sup>38)</sup>의 기억에 따르면, 애지사는 좌익계 신문 『독립신보』의 인쇄도 담당했다. 『독립신보』는 여운형과 백남운이 고문을, 고경흠이 주필을 맡았던 신문으로 조선공산당 계열에 속하지 않은 좌익계열 신문으로 각 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는 점에서 다른 좌익계 신문과 뚜렷이 구별된다.<sup>39)</sup> 해방 다음 날 바로 여운형을 찾아갔다는 팔봉의 앞선 회고 내용을 고려하면, 이 신문 인쇄가 애지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별반 놀랍지는 않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독립신보』 발간이 해방기 출판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해 휴간과 복간을 거듭해 인쇄 공장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이다. 1946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인쇄공 파업으로 휴간되었다 재발행되었고, 1948년 ‘2·7 구국투쟁’ 시기에도 휴간과 복간이 반복됐다. 정확한 폐간 날짜는 확정하기 어려운데, 좌익 신문사에 대한 우익의 테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필 고경흠이 1947년 6월 1일 괴한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고, 1947년 7월 15일에는 『독립신보』와 『광명일보』 등을 인쇄하던 태양당

37) 『동아일보』에 실린 신간 소개 광고 기사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週刊新太平洋(第八號) “共產黨 戰術解剖”」, 『동아일보』, 1947.9.11; 「新太平洋(第十二號) 太平洋社 發行」, 『동아일보』, 1947.12.18; 「新太平洋(週刊) 新太平洋(第一卷 第十三號) “장덕수씨 특집” 서울시 乙支路 愛智社 발행」, 『동아일보』, 1948.1.20; 「新太平洋(週刊) 서울시 中區乙支路 愛智社 發行」, 『동아일보』, 1948.2.21. (강조-인용자)

38) 팔봉의 회고록 「나는 살아있다」에 ‘이영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애지사 문선과장은 후일 『중앙일보』 특집 기사 「적치하의 3개월 (3)」(1970.10.26.)에서 ‘전재홍’이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어 등장한다. 해당 기사에는 “김팔봉 씨와 함께 인민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그들의 곤봉 세례를 받은 애지사 문선과장 전재홍 씨(당시 이름은 영환)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마 팔봉이 ‘전’씨를 ‘이’씨로 잘못 기억했던 듯싶다.

39) 박순섭(2017), 「『獨立新報』의 좌경화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역사연구』 32, 역사학연구소, pp. 116-120.

인쇄소와 보성사 등이 우익 청년들의 습격을 받았으며, 1948년 4월 27 일에는 급기야 고경흠이 피검되는 상황에 이른다.<sup>40)</sup>

이처럼 인쇄공 파업이나 우익 테러, 주필 피검 등의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독립신보』는 인쇄소를 여러 차례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지사 문선과장 전재홍의 증언대로라면 1949년에서 1950년 사이 『독립신보』 인쇄를 담당한 것은 바로 애지사였음이 확실하다.

을지로 3가에 있던 애지사에서는 독립신보<sup>41)</sup>(주=여운형 씨의 근민당계 신문)란 신문의 인쇄를 청부맡아 찍고 있었죠. 제법 큰 인쇄소였어요. 6·25가 나고 괴뢰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나는 집에 들어앉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6월 29일인가 출판노조원이란 자들이 찾아와 자기들 노조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중략) ‘나야 죄 지은 것 없으니 별일 없겠지’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데, 밤이 되도록 물 한 모금은커녕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밤이 꽤 깊었을 때 애지사 사장인 김팔봉씨가 잡혀 옵니다. 그분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게냐”고 물었더니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략) 그러더니 <인민재판소>라고 쓴 플래카드 뒤에 두 사람을 따르게 하고, 부민관(지금의 국회) 앞에서 재판을 시작하더군요.<sup>42)</sup> (강조-인용자)

팔봉의 장녀 김복희가 기억하기에 팔봉은 애지사를 영·독·프·중·일 등 많은 외국서적을 출판하는 큰 출판사 겸 인쇄소로 키우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간지나 신문을 찍어내는 일로 너무 바빴을 뿐 아니라 경제사정이 열악하여 종업원 월급날마다 팔봉은 자금조달

40) 권시용 감수, 신문 해제—『독립신보』,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sub05.do?paper=%EB%8C%80%EA%B5%AC%EC%8B%9C%EB%B3%B4\\_%E5%A4%A7%E9%82%B1%E6%99%82%E5%A0%B1](https://www.nl.go.kr/newspaper/sub05.do?paper=%EB%8C%80%EA%B5%AC%EC%8B%9C%EB%B3%B4_%E5%A4%A7%E9%82%B1%E6%99%82%E5%A0%B1))

41) 『독립신보』의 오식이다.

42) 「적지하의 3개월 (3)—인민재판 (하)」, 『중앙일보』, 1970.10.26.



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sup>43)</sup>

아이러니하게도, 해방을 맞이해 팔봉이 유일하게 긍지를 갖고 착수했던 이 인쇄소 사업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그가 인민재판을 당하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인민재판 당시 검사의 논고는 이러했다. ‘팔봉은 과거에 좌익 운동을 하던 자로 8·15 전후에 변절하였고, 자신이 밀정 행위를 하는 것을 물론이요 경찰의 밀정을 인쇄소 공장 직원으로 고용하여 다수의 동지를 투옥시켰고, 인쇄소 사장으로 노동자를 착취하였으니, 사형을 구형한다.’<sup>44)</sup> 인민재판이라는 팔봉의 참혹한 경험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애지사예 대한 팔봉의 애정은 남달랐다. 팔봉의 수기 「나는 살아 있다」(1951)에는 인민군 점령 하 서울에서 인쇄공장 사장으로 전전공공하는 팔봉의 상황이 세밀하게 그려진다. 애지사에서 살림살이를 했던 그는 설령 공장에 화재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계만은 화를 입지 않게 하려는 절실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짐을 꾸려 놓는다.<sup>45)</sup> 1·4 후퇴 이후 대구 피난 시절 지상에 발표한 글들을 모은 팔봉의 첫 수필집 『심두잡초』(영문사, 1954)에서도 애지사예 대한 그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한겨울 서울을 떠나는 팔봉의 내면에는 인쇄소를 그냥 두고 왔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해 눈길을 끈다.

이번에도 1월 3일 밤까지 서울에 홀로 남아 있다가 화광이 충전하는 것을 보고 더 있기가 싫어서 죽은 듯 고요한 수도를 등지고 한강 빙상을 걸어서 건넜다. 이후로 헤어진 가족들의 소식이 그다지 궁금하지 아니하되 문득문득 **영등포까지 큰아들이 동행해**

43) 김복희(1995), p. 53.

44) 김기진(1951), 「나는 살아 있다」, 『문학전집』 5, p. 580.

45) 김기진(1951), pp. 559-560.

서 **운반해놓은 읍셋과 활판 인쇄기계와 그대로 내버리고 나온 시가(時價)로 말하면 수억 원어치 공장 시설이 생각나는 때가 없지 않다.**<sup>46)</sup> (강조-인용자)

팔봉이 애지중지하던 인쇄기는 1·4 후퇴 당시 군에 징발당하고 휴전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공장은 불타 없어지고 빈터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sup>47)</sup>

해방기의 소위 ‘출판혁명’<sup>48)</sup>을 목도하며 제대로 된 출판인쇄 사업의 꿈을 펼쳐보려던 팔봉의 면모는, 일제 시기 내내 이런 저런 사업에 손을 대며 일확천금을 꿈꿨던 청년 김기진의 모습을 그대로 상기시킨다. 정어리 공장, 금광, 주식, 술장사, 인쇄업 등 팔봉을 거쳐 간 사업은 한둘이 아니다.<sup>49)</sup> 팔봉이 이리저리한 사업들에 바쳤던 열정과 자본, 그리고 그 때마다 품었던 문화적 포부가 해방기에는 출판인쇄소 경영이라는 형태로 굴절을 겪은 것이다.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팔봉 자신의 표현대로 그는 예술과 실업 사이에서 내내 진동한다. 그러나 두 갈래길 앞에서 단지 주저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넉넉한 자금을 바탕으로 문화 사업을 일으켜 낙후한 조선 사회에 빛이 되려는 일관된 욕망을 품었던 인물이다. 이후 1954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그는, 1960~1970년대에는 『경향신문』 주필, 재건국민운동중앙회 회장 및 고문을 거쳐 한국문인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고, 그의 사후인 1990년에는 한국일보사에서 팔봉비평문학상이 제정된다.

이처럼 일생 동안 문단 안팎에서 끊임없이 주류를 형성하거나 그것에 다가가려 했던 그의 반복된 실패와 재도전을 진지하게 관찰하다 보면, 팔봉에게는 이후 현대 한국 문단의 전개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

---

46) 김기진(1954), pp. 13-14.

47) 김복희(1995), p. 55.

48) 이중연(2005), 『책, 사슬에서 풀리다—해방기 책의 문화사』, 혜안, p. 181.

49) 김기진(1965), pp. 446-449.

학-출판-잡지 권력'의 한 원형(原型, prototype)적 자질이 분명 엿보인다. 출판 자본과 문단, 학계, 그리고 언론이 문화적 권력을 형성해 때로는 저항 지식인의 메카로, 또 때로는 친정부 활동의 거점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술과 실업 간의 교묘한 줄타기는 팔봉의 개인적 욕망이자 현대 한국 주류 '문단인'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 3. 회월 박영희의 해방 전후

#### 3.1. 회월의 '상아탑 콤플렉스'와 非문단적 문학의 길

초창기 카프의 명실상부한 기수 회월 박영희는 1934년 일찌감치 카프 탈퇴를 선언하고, 일제 말기에는 『전선 기행』 집필과 창씨개명, 친일 문인 단체 활동 등으로 요약되는 굵직굵직한 친일 행적을 남긴 바 있다. 이 절에서는 일제 말기 회월의 친일 행위를 추적하거나 그가 남긴 문단사·문학사의 전향 서사적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기왕의 연구들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시기 회월의 행적과 내면에 접근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실은, 거물로 대접 받은 팔봉과 대조적으로 박영희는 카프 1차 검거 사건 당시 “삼 개월 동안 고문에 몸이 쇠약하여져서 심장각기로 쓰러”<sup>50)</sup>진 혹독한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회월은 “다른 문인과는 달리 왼팔이 꺾일 정도의 고문과 강압으로 형식적인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sup>51)</sup>다는 임현영의 지적이 회월을 위

50) 박영희(1959), 「독방」, 『전집』 1, p. 346.

51) 임현영(2016),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현영의 필화 70년 (5) 친일과 최남선·이광수·박영희의 ‘필화」, 『경향신문』, 2016.11.2.

한 변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주목할 지점은 자전적 소설 「독방」에 드러나는 박영희의 독특한 ‘정신주의’이다. 「독방」의 주인공은 고문으로 이미 한차례 망가진 적 있는 자신의 육체를 불안하게 살핀다. 성경 읽기에 집중하거나 건강 염려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물질을 초월한 정신적 세계를 동경하는 「독방」의 주인공은 “나의 생활은 전부가 정신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갔”<sup>52)</sup>이라고 고백한다.

회월의 이러한 정신주의를 염두에 두고, 앞서 언급한 팔봉의 ‘거물 콤플렉스’에 비견되는 내면적 특질을 회월에게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상아탑 콤플렉스’라 할 수 있다. 우선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1934)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회월은 위 글에서 자신이 카프를 탈퇴한 이유로 첫째, “진실한 예술적 집단이 될 수 없”을 만큼 카프는 예술과 정치를 일원화했고, 둘째, 비평 만능주의에 입각한 창작 지도가 무의미해졌으며, 셋째, 카프 지도부의 편협한 당파성과 파벌주의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 등을 꼽는다.<sup>53)</sup>

본고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카프 퇴맹의 두 번째 이유이다. 아래 인용문이 암시하듯 박영희는 퇴맹의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면서 비평이 창작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역설하기보다 비평은 원래 창작을 지도할 수 없다는 문학이론을 구사하고 있다. 즉 “모든 사실주의, 자연주의, 낭만주의에 관한 지식은 평론가가 창작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가의 창작에서 학습”하는 것인데 이는 “평가(評家)가 가

---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611022132005#csidx0ee7ffa788803acba468e3c63c2db36](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611022132005#csidx0ee7ffa788803acba468e3c63c2db36))

52) 박영희(1959), p. 423.

53) 회월이 내세운 첫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에 숨어 있는 논리와 정서에 대한 정주아의 정치한 분석을 참고할 것. 정주아(2016), 「동지애와 증오애(hurting love)—회월 박영희의 전향선언과 ‘좌파/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학회.

진 것은 일개의 개념뿐이나 작가의 작품에는 **구체적 형상**이 표현되어 있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예술은 정서적 감염이라고 하였으나 만일 작품에 정서적 활동이 없으면 정서적 감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예술적 형상과 인간의 정서적 활동의 연구—미학—은 문학사적 연구에 속한다. (중략) 카푸의 문학적 지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중략) 이것이 또한 내가 퇴행한 제 2의 이유이다.**<sup>54)</sup> (강조-인용자)

“다만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며 상실한 것은 예술 자신”이라는 유명한 경구가 담긴 위 비평문은 회월의 ‘전향 선언문’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녕 위 글의 목적이나 성격이 회월의 ‘전향 선언’으로 수렴될 수 있는지는 새삼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문학의 본질은 “창작가 자신의 관찰력”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예술적 형상화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인간의 정서적 활동에 있다는 위 인용문 내용은 톨스토이의 예술론을 연구하는 ‘미학자’에게서 안출된 견해인 것이다. 회월은 여기서 사상 전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미학 이론을 설파하는 중이다. 미학적으로 볼 때 문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연한 창작 방법론의 성공적 적용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감염에 있다는 것이 그 이론의 요지이다.

정치와 예술의 분리라든가 사회사와 문학사의 구별 같은 회월 특유의 이분법적 사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창작(가)의 자유 문제가 작가도 비평가도 아닌 제 3자, 즉 문학연구자 혹은 미학이론가의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도자의 횡포, 독단”에 의해 야기되는 “창작의 무기력, 무주장” 등에 대한 회월 식 문제제기<sup>55)</sup>는 일찍이 조금 다른 맥락에서 김동인에 의해 이

54) 박영희(1934),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 『전집』 3, p. 559.

루어진 바 있다. 주지하듯, 창작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서 비평가 ‘변사론’을 주장한 김동인은 다름 아닌 ‘작가’로서 예술 창작(가)의 권리를 옹호했다. 반면 논쟁의 당사자 염상섭은 비평가 ‘판사론’을 내세우며 작가의 인격과 전 생애를 비평가의 안목으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비평가’로서 발언한 것이다. 반면 회월은 작가도 비평가도 아닌 제 3자, 즉 문학연구자 혹은 ‘미학자’의 입장에서 비평의 횡포를 견제하려 한다. “문학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종합체”<sup>56)</sup>이다.

회월이 지닌 이러한 연구자·이론가 정체성은 그로 하여금 “문학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현재로서 보면 한 사람도 없”<sup>57)</sup>다는 자부심 섞인 단언을 내리게 한다. 회월이 보기에 경향파 논객 대부분은 학자로서의 훈향(薰香)을 결여하고 있어, 대부분의 논쟁이 “아모 학문적 승패도 없”을 뿐 아니라 “오래 끄는 사람이 승리한 듯이 자긍”하는 일이 허다하다.<sup>58)</sup> “학문으로서의 평론” 또는 “학문적”이라는 태도가 결여된 것이 현 문단 상황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문적 비평”이라는 주장도 위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회월은 비평가의 개인적 ‘취미’가 아닌 확실한 ‘체계’에 입각한 비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당파성적 비평, 우정적 비평, 우정적 소당파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sup>59)</sup>

실제로 문인들이 기억하는 회월은 늘 서재에 파묻혀 있었다. 안석주는 회월이 “두문불출 서재에 묻혀, 여기를 나오는 때, 문단에 새로운 선물을 가져올 듯”<sup>60)</sup>하다는 만평을 내놓았고, 이선희는 회월을 가리

55) 박영희(1934), p. 545.

56) 박영희(1939a), 「학생과 문학」, 『전집』 4, p. 383.

57) 박영희(1937), 「조선문단 상반기 총결산」, 『전집』 4, pp. 263-264.

58) 박영희(1937), p. 265.

59) 박영희(1940), 「창작과 비평의 교류」, 『전집』 4, pp. 402-404.

60) 안석주(1933), 「漫文漫書 문단 메리꼬라운드—두문불출의 懷月 朴英熙씨」, 『조

켜 “밤낮 거기[서재-인용자] 파묻혀 [있는] 진실한 서재의 포로!”<sup>61)</sup>라는 인상기를 남기기도 했다.

따라서 회월이 가두(혹은 시장)와 상아탑을 문학이 관계하는 상이한 두 세계로 파악한 것은 당연했다.<sup>62)</sup> 서재에 파묻혀 문학 이론 연구에 골몰한 회월의 ‘상아탑 콤플렉스’는 일제 말기 그가 문학원론을 구상하고 집필하는 내적 원천으로 작용하여, 그는 『문장』 1940년 2월호를 기점으로 ‘문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야심찬 문학원론 집필 계획을 세웠으나, 이 일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해방 후 1947년 나머지 내용이 채워져 같은 표제의 단행본이 출간된다. “친일행위가 극에 달했던 1941년 무렵에 그가 문학원론을 썼다는 것은 한국문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일문학과 분리해서 취급해야 할 약간의 여지를 남긴”<sup>63)</sup>다는 김윤식의 적절한 지적대로, 박영희의 상아탑 콤플렉스는 전향한 좌파 출신 친일 지식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환원되지 않는 회월의 고유한 내면적 특질을 형성한다.

회월의 상아탑 콤플렉스가 어디에 닿아있는지 알려주는 단서는 무엇일까? 회월 특유의 非문단적 성향에서 발견된 직하다. 1920년대부터 일제 말기에 이르는 다소 긴 시간 동안 변치 않는 회월 사유의 한 특징을 非문단적 문학의 지향이라는 말로 요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문학연구자 회월의 눈에 비친 카프 맹원들은 진정한 예술 운동가가 아니라 어설픈 문단 정치가들처럼 보였는지 모른다. 회월의 카프 탈퇴를 사상 전향의 결과인 동시에 非문단적 문학을 추구하는 학자적 결

선일보』, 1933.1.31.

61) 이선희(1936), 「작가조선의 군상—인물과 작품의 인상식 만평」, 『조광』, 1936.5. p. 175.

62) 박영희(1924), 「한담」, 『전집』 2, p. 59; 박영희(1947), 『문학의 이론과 실제』, 일월사, 『전집』 4, p. 447.

63) 김윤식(1989b), p. 119.

단으로 읽어낸다고 해서 그의 전향과 친일 행적이 자동적으로 합리화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 각각의 영역이 지닌 고유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에 이미 회월은 동인지 시대 문인들의 배타적 행태를 ‘문단적 문학’ 추구로 규정하며 비판한 바 있다. 민중을 위한 탐구자가 되어야 할 문인들이 오로지 문단을 위해 그리고 문단 내 지위 확보를 위해 창작하는 일개 ‘문단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엿보인다.

조선의 현금의 문예는 너무도 코티리의 문학이다. 다시 말하면 엇더한 단체나 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생기는 문학이란 말이다. (중략) 싸러서 문학이란 데에 가치도 적을 것이다. 가령 술 잘 먹는 단체의 문학이 술쥘을 찬미해서 그 동지들의 마음을 즐거우게 한다든지 (중략) 그리다가 그것이 좀 발달해서는 엇더한 문단이라는 것을 세워 놓고 그 문단을 위해서 노력하며, 그 문단을 위해서 창작하며, 그 문단에서 자기의 문예적 가치를 발휘하라는 경향이 크다. 그런 것이 안이다. 인류 전반이나 민중 전반의 생활에 대해서 혹은 감정에 대해서 확호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를 위한 공부가 안이라 연구를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문단을 위한 문예가 되려지 말고, 민중의 전적 진리를 위한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sup>64)</sup> (강조-인용자)

위의 짧은 시평에서 일찌감치 엿보이던 회월의 이러한 非문단적 기질은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 쓰인 아래 비평문에서 보다 진화(?)하여 反문단적 문학 추구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

문학이라 하면 물론 작품을 가지고 표준하는 것이나 문단이라 하

64) 박영희(1925), 「문단시평—문단을 너머 선 문예」, 『전집』 3, p. 86.



면 각개의 문인들의 작품보다도 **인적 관계의 집합**을 추상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문학의 **세태**를 만들어 내고 그 **유행될 주의**를 선포해서 문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중략) 외국문단에도 그러한 경향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문단에서는 작가들의 존재보다도 **유행주의 안내계(案内界)의 논객들**의 지위가 훨씬 **고좌(高座)**에 앉은 것같이 보인다. (중략) **평론가가 전권이 있어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유**가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sup>65)</sup> (강조-인용자)

회월은 위 글에서 집단 의식과 당파성을 강조하는 현 조선 문단이 극도로 배타적인 기준을 내세워 작가들의 개성을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행을 선도하는 논객으로 자처하면서 문단 내 권력자로 군림하는 몇몇 비평가들에 대한 회월의 문제제기가 돋보인다. ‘문단적 문학’에 대한 비판 의식이 회월의 내면에 일관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암시하는 위 글은, 이보다 1년 정도 앞서 발표되었던 임화의 비평문 「문단적인 문학의 시대」를 뚜렷이 환기한다. 임화는 위 글에서 경향문학의 퇴조로 도래한 ‘문단적인 문학’의 시대를 날카롭게 해부하면서, 오로지 문단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문단 안의 문제로 시종하는 ‘문단적인 문학’은 결코 ‘문학적인 문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역설한다. 문단은 시대의 본질에 가닿지 못한 평범한 표면에 불과하므로 훌륭한 문학이 문단 주변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단의 중심이란 것이 반드시 예술의 진수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66)</sup> 작가가 사교와 처세술을 익히려 하는 한 문단은 “무의미한 사교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임화의 판단이다.

물론 둘의 입각점은 조금 다르다. 임화가, 현 단계 문학은 ‘운동으로

65) 박영희(1939b), 「현문단의 성격」, 『전집』 4, pp. 366-367.

66) 임화(1938), 「문단적인 문학의 시대」, 책임편집 신두원(2009), 『임화문학예술전집』 3(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소명출판, pp. 214-215.

서의 문학'에서 '생활로의 문학'으로 돌아갔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들은 결국 '문단적 문학'으로 퇴행했을 따름이라 비판했다면, 박영희는 카프가 내세우는 '운동으로서의 문학'이야말로 가장 '문단적 문학'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임화보다는 회월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

인맥과 이해관계에 따라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유행을 선도하거나 추수하는 일부 권위 있는 비평가가 권력자 행세를 하는 주류 문단 권력에 대한 박영희의 예리한 비판은 지금 이곳에도 충분히 시의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영희는 카프 맹원들이 예술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단 정치를 꾀했다고 보고 이에 절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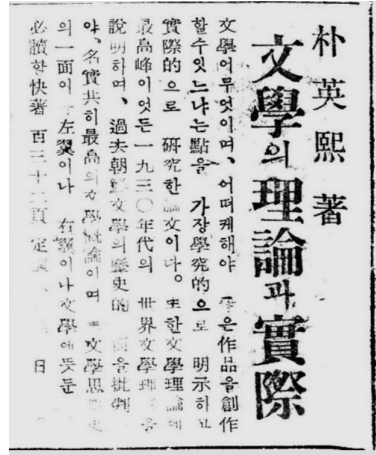
### 3.2. 전향 선언의 이면—유산된 미학이론

팔봉이 가두의 인쇄소 공장에서 해방기를 보냈다면 회월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서재에서 해방을 맞이한다. 1945년 12월 춘천공립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1946년 12월 사직한 그는 1948년 3월부터 서울대, 국민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67)</sup> 이 시기에 회월은 두 가지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문학사 집필과 문학이론서 완성이 그것이다. 이 중 기왕의 논의에서 중심을 차지했던 텍스트는 회월의 문학사 작업에 해당되는 「초창기의 문단 측면사」와 「현대조선문학사」이다. 앞의 것은 1959~60년 사이 『현대문학』에, 뒤의 것은 1958~59년 사이 『사상계』에 각각 연재되어 세상에 알려진다. 반면 1947년 4월 일월사에서 간행된 회월의 문학원론서 『문학의 이론과 실제』는 당대에도 이

6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0963](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0963))

후에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카프 탈퇴 이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의 몇 년 동안 그가 구상하고 집필한 논문들을 모은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 회월은 1940년 2월·4월·5월호 『문장』에 논문 연재를 하면서 저서로서의 체계화를 시도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문학의 이론과 실제』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 책 출간으로 박영희가 해방기에 겪은 필화 사건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경향신문』, 1947.5.6.

“문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냐는 점을 가장 학구적으로 명시하고 실제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한 문학이론에 최고봉이었던 1930년대의 세계문학이론을 설명하여 과거 조선문학의 역사적 ○○을 비판하여, 명실공히 최고의 문학개론이며 또 문학사상사의 일면이○, 좌익이나 우익이나 문학에 뜻 둔 ○○○ 필독한 쾌저(快著)”

위의 광고 기사는 박영희의 책이 좌우익을 막론하고 문학에 뜻을 둔 이들이 꼭 읽어야 할 쾌저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좌익도 우익도 친일 작가의 출간을 환영하지 않았다. 해방 직후에 이미 경성출판노동조합에서 ‘민족 반역자의 출판물 거부’를 천명하면서 친일파의 저술을 출간하지 말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947년 5월 백양당에서 나온 임화의 시집 『찬가』가 판매중지 조치를 당하자 곧바로 조선문학가동맹과 조선

출판문화협회 측이 군정장관, 민정장관, 공보부장 등을 찾아가 성명서와 항의서한을 전달하던 당시 상황에서 친일 작가 이광수나 박영희의 출간 소식은 조선문학가동맹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조선문학가동맹은 곧바로 안재홍 민정장관을 방문해 “친일파들의 저서의 발매금지과 이것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한 후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신문지상에 발표한다.

“요지음 거리에는 친일파 이광수 저 『꿈』 박영희 저 『문학의 이론과 실제』란 책자들이 발매되어 인민은 이 괴상한 현상에 격분하는바 적지 않은데 조선문학가동맹에서는 4일 안민정장관[안재홍 민정장관-인용자]을 방문하고 이들 친일파들 저서의 발매금지과



[그림 2] ‘친일작가와 『꿈』꾸는 출판사 민족의 적을 처단하라’, 『문화일보』, 1947.7.6.

이것을 간행한 출판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문을 전달하고 (중략)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중략) 왜적과 왜적의 이익을 위하여 동족을 팔아먹은 친일분자는 한 하늘 밑에 함께 복받고 살지 못할 민족의 원수다. (중략) 친일분자의 거두에게 어찌하여 출판의 자유가 용인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조선에는 친일파의 전횡이 일제 강점기를 연상케 한다. (중략) 금번 이광수의 작품집 『꿈』과 박영희의 평론집 『문학의 이론과 실제』를 발간한 것은 이 가장 큰 예이다.” (강조-인용자)

“이광수·박영희 등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반역자 규정에 의하여 처단할 때까지 언론·출판·집필 등 일체 활동을 금지”시키라는 요구로 끝나는 조선문학가동맹 성명서에서, 박영희는 이광수와 함께 ‘친일파의 거두’로 칭해지고 있다. 실제로는 좌파 문단에도 친일 문장을 남긴 문인이 드물지 않았으나 “세부적으로 친일의 글쓰기를 묻는 건 서로 기피”하는 상황에서 두 ‘거두’가 집중 포화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sup>68)</sup>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이광수의 작품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활발히 유통·소비된 반면<sup>69)</sup> 박영희는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문학사 관련 서적조차 출간해 줄 출판사를 찾지 못해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백철의 회고에 따르면 ‘세상의 인심’을 탓하던 회월은 자신이 쓴 신문학사를 자기 이름으로 내지 못하는 현실에 매우 분개하고 괴로워했다. 회월이 1948년경 신문학사 원고를 마무리하고도 출판사를 찾지 못한 ‘덕분에’ 백철의 신문학사가 먼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다.<sup>70)</sup>

그 체계화나 패기, 논리의 심화, 그리고 섭렵한 문학론의 범위 등을 볼 때 “한국신문학이 가진 유일한 문학원론”<sup>71)</sup>이라 할 수 있는 『문학

68) 이중연(2005), p. 336.

69) 김종수(2010), p. 205.

70) 백철(1975), p. 349.

의 이론과 실제』는 회월이 카프 탈퇴 이후 여러 지상에 발표했던 글들을 뼈대로 구성된 저서이다. 『문학의 이론과 실제』에는 박영희가 실로 수많은 동서양 문예이론가와 철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의 저작들을 두루 왕성하게 읽고 번역하고 인용하면서 문학 이론의 체계화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중요한 것은 『문학의 이론과 실제』<sup>72)</sup>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문학의 미학적 이해 가능성이며, 그것은 이미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에서 상당 부분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이라는 문제적 비평문에서 기실 박영희는 ‘사상 전향을 선언’하기보다 ‘문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한 바가 있다. 두 텍스트의 대화 양상은 <서문>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주요 문제의식이 고르게 공유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문학의 이론과 실제』의 <서문>에서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수많은 혁명운동과 사상운동에도 때로는 정치적 모략이 뒤따른다는 점이 강조된다. 빈민과 노동자의 행복을 위해 출발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운동도 결과적으로는 인류와 민족의 영구한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광범한 정신세계를 유물론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인간을 “감정의 자유가 없고 개성의 활동이 없는” “목상” 혹은 “인조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sup>73)</sup> 이런 상황에서 조선 문단에 발표된 포석 조명희

71) 김윤식(1989b), p. 127.

72) 절 제목을 생략한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서문 대신에
- 제 1장 푸러야 할 모든 문제
- 제 2장 문학적 창조성의 제한과 분석
- 제 3장 심미적 활동의 가치와 규정
- 제 4장 개성 문제와 작가의 자유성
- 제 5장 작품의 한계성과 비평의 기준
- 제 6장 건전한 문학정신의 확립

의 「낙동강」(1927)은 그 애상적·정서적 특질로 말미암아, 비평가들로 하여금 죽은 줄 알았던 인조인간에게 눈물과 사랑이 있음을 재발견하게 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소련의 라프가 문학적 조직이 아닌 작가의 검열관으로 전락했듯 조선의 카프 또한 같은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회월은 <서문>에서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 일부를 길게 인용해 놓는다. <서문>에 드러난바 『문학의 이론과 실제』는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과 집필 동기와 목적, 주요 내용 등을 공유하면서 그 문제의식과 자료를 크게 확장시켜 체계화한,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의 후속편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1장에서 회월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인생을 위한 예술’을 언급하려 한다면서, 자신의 목적은 공리주의의 구렁텅이에서 문학을 구해내 본래의 정도(正道)로 걸어가 위대한 작품 정신을 부흥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진로가 막힐수록 이론이 범람하므로 이론 제일주의나 사도(邪道)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 제일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미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에서 “지도자의 횡포, 독단, 창작의 무기력, 무주장”<sup>74)</sup>이라는 신랄한 표현을 얻은 바 있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매슈 아놀드, 블라디미르 프리체, 에른스트 그로세, 보그다노프 등의 예술사회학이 폭넓게 소개되면서 결국 문학이란 미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책의 핵심에 해당되는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심미성’과 ‘개성’의 문제를 논한다. 사상성을 강조한 프롤레타리아 문학론이 이데올로기의 선전물로 전락하면서 심미의 세계가 좁아졌다는 것이 3장 논의의 출발점이다. 여기서도 보그다노프, 플레하노프, 그로세, 루나차르스키, 프리체 등의 이론이 거침없이 인용되고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회월이 미적 가치의 항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 예술에 대한 마르크스의 해석

73) 박영희(1947), pp. 437-438.

74) 박영희(1934), p. 545.

을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자크와 입센을 대조하기 위해 브란데스의 발자크론과 플레하노프의 입센론을 소개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브란데스나 플레하노프의 미학이론은 충분히 설득력 있지만, ‘좋은 사상성 = 유물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둘은 동일한 한계를 노정한다는 것이 3장의 결론이다. 4장에서는 인물의 개성과 작가의 개성 두 차원이 함께 다루어진다. 인물의 개성 창조에 관해서는 셰익스피어, 발자크, 톨스토이 등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상찬한 작가들이 높이 평가되고, 작가의 개성 문제를 논하는 장면에서는 이론(창작방법론)의 범람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작가들에 대한 회월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작가에게 자유를 달라는 것이 4장의 핵심 주장이다. 이 역시 작가들의 ‘검열관’으로 전락한 카프의 ‘섹트주의’를 비판한 「최근 문예 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에서 일찌감치 제기되었던 내용이다.

비평의 기준과 문학의 고유성에 대해 논하는 5장은, 황금을 아무 데나 쓰면 부서지듯이 위대한 예술가에게도 그 본래의 예술적 능력 이외의 능력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러스킨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개된다. 그러나 온갖 창작방법론이 범람하며 비평 만능주의에 경도되었던 과거 조선 문단에는 문학의 한계와 고유성에 대한 이러한 성숙한 인식이 부재했다고 그는 비판한다.

6장에서 회월은 문학의 이념이란 “작가의 위대한 정신의 발휘”를 뜻한다면서 좋은 작품은 특정 계급이 아닌 인류 전체의 것이라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위대한 작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이자 작가의 특권으로 완전한 관찰과 표현을 꼽는다는 점인데, 아래 인용문에 회월 문학론의 요체가 잘 담겨 있어 주목된다.

문학은 **상아탑** 속에 있을 것도 아니며 어둠침침한 **공장** 속에만 있을 것도 아니며, **궁전**이나 **공장**이나 부자나 빈자나 선인이나 악인을 한 가지로 **관찰**할 수 있는 산상이나 고대(高臺)에서 그 시



야를 마음껏 널피고 크게 해야 할 것이다. 이곳에 **작가의 특권과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sup>75)</sup> (강조-인용자)

시야가 넓을수록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작품일수록 장 마리 귀요 식의 “공감성”이나 톨스토이 식의 “감염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6장의 결론이다. 이 대목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회월이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에서 이미 작가의 관찰력에 기반을 둔 풍부하고 구체적인 예술적 형상이야말로 톨스토이가 말하는 ‘정서적 감염’을 가능케 하고 그것이 다름 아닌 미학 혹은 문학사적 연구에 속한다는 사실을 공들여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sup>76)</sup>

위에서 살펴본 대로 『문학의 이론과 실제』는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의 핵심을 계승하면서 회월의 학술적 역량을 집약한 본격적 학술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직후 남북되어 실종된 박영희의 침묵과, 해방 이후 붓물처럼 터진 팔봉의 수다 사이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의 이론과 실제』는, 비록 이론의 언어일망정, 해방기에 서재에 파묻혀 있던 회월의 ‘말해지지 못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문학의 이론과 실제』가 얼마나 논리적 정합성을 띠는지, 그 학문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논하기에 앞서<sup>77)</sup>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회월이라는 한 非문단적 문학인의 학문적 여정에서(특히 그 종착점에 놓인 『문학의 이론과 실제』에서) 이후 한국 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 등장하는 강단비평 혹은 문학에 대한 미학적 교육의 어떤 원형(prototype)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회월의 마

75) 박영희(1947), p. 497.

76) 박영희(1934), pp. 558-559.

77) 예컨대 이도연은 박영희가 “외래사조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몸을 바꾸는 철세 문학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고 혹평한 바 있다. 이도연(2018), 「박영희·입화 비평의 사유 체계와 인식소들」, 『우리어문연구』 62, 우리어문학회, p. 113.

지막 책에 주목하는 것은 친일이라는 그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남긴 미학이론의 유산을 우리 비평사에 되살리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이 글은 식민지시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기수이자 내용형식논쟁의 당사자로 널리 알려진 팔봉 김기진과 회월 박영희가 해방을 전후하여 각자 선택한 상이한 삶의 경로를 추적하여, 이들이 이후 현대 한국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류 문단 권력과 비문단적 강단 비평의 흐름을 각각 어떤 방식으로 예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팔봉의 뿌리 깊은 ‘거물 콤플렉스’가 해방 이후 애지사를 설립한 그를 어디로 이끌어갔는지 탐색한 결과, 팔봉에게는 이후 우리 문단에서 목도되는 ‘문학-출판-잡지 권력’의 한 원형(原型, prototype)적 자질이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선구자의 식으로 무장한 팔봉에게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문화 사업을 일으키려는 문단 권력(자)의 초상이 발견된다. 한편 비문단적 문학의 길을 걷고자 했던 회월의 ‘상아탑 콤플렉스’는 서재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로 하여금 치열하게 글쓰기 작업에 몰두하게 한다. 그러나 그 작업은 오히려 필화를 야기하고 한층 위축된 회월은 문단과 학계, 그리고 출판계에서 더욱 더 멀어진다. 문학에 대한 미학적 이해라는 회월의 학술적 지향점이 그의 친일 행위를 가리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상아탑 콤플렉스조차 전향과 친일이라는 해석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면 우리 문학사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자 료】

- 김복희(1995), 『아버지 팔봉 김기진과 나의 신앙』, 정우사.  
 백철(1975), 『續·진리와 현실—백철의 문학생애 그 반성의 기록』, 박영사.  
 윤치영(1991), 『윤치영의 20세기—동산 회고록』, 삼성출판사.  
 이동희·노상래 편(1997), 『박영희 전집』 1-4, 영남대학교출판부.  
 홍정선 편(1988), 『김팔봉 문학전집』 1-6, 문학과지성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논 저】

- 강용훈(2015), 「해방전후의 현대문학사 연구」, 『한국문학논총』 69, 한국문학회, pp. 291-326.  
 김윤식(1989a), 「회고록의 효용성에 대하여—김팔봉, 박영희의 경우」, 『선청어문』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 381-400.  
 \_\_\_\_\_(1989b), 『박영희 연구』, 열음사.  
 김종수(2010), 「해방기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 199-227.  
 김준현(2018), 「1950년대 전향자 문인의 자기서사 재구성 양상—김기진, 백철의 문단회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4, 한국문학연구학회, pp. 7-38.  
 박순섭(2017), 「『獨立新報』의 좌경화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역사연구』 32, 역사학연구소, pp. 115-148.  
 박지영(2015), 「‘전향’의 윤리, ‘혁명’의 기억—해방 이후 박영희의 문학사 서술에 나타난 기억의 정치」, 『상허학보』 44, 상허학회, pp. 477-522.  
 야나가와 요스케(2018), 「백양당 연구—인곡 배정국의 삶과 문학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67-103.  
 오영식(2009),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오영식 편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출판.

- 윤대석(2015),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조선」,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pp. 307-334.
- 이도연(2018), 「박영희·임화 비평의 사유 체계와 인식소들」, 『우리어문연구』 62, 우리어문학회, pp. 95-139.
- 이미정(2017), 「기억의 정치학과 해방 이후 한국문단 형성 과정 연구—1948-1960년의 문단 회고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8, 한국문화융합학회, pp. 371-398.
- 이중연(2005), 『책, 사슬에서 풀리다—해방기 책의 문화사』, 해안.
- 정주아(2016), 「동지애와 증오애(hurting love)—회월 박영희의 전향선언과 ‘좌파/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pp.7-39.

원고 접수일: 2021년 7월 26일

심사 완료일: 2021년 8월 16일

게재 확정일: 2021년 8월 16일

ABSTRACT

---

The Street and the Library:  
Palbong and Hoiwol's Journey Before and After Liberation

Son, Youky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tructure the activities of 'Palbong' Kim Gi-jin and 'Hoiwol' Park Yeong-hui after liberation, and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t cultural practices sought by the two individuals on the street and in the library in terms of the history of criticism and the history of intelligence. The literature history written by Palbong and Hoiwol, who were both companions and rivals to each other, used to be handled by the standard approach in which their writings wer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post-liberation discussion. Breaking free from the conventional approach, this article highlights the aspects of Palbong that were unknown to Hoiwol and those of Hoiwol that were unknown to Palbong in order to derive the proto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ture-publishing-magazine power' and the 'academic criticism free from the literary community' that were later found in the literary and intellectual circles in Korea. Firstly, Palbong's unique 'tycoon complex,' which stood out from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re-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viewed, focusing on his episodes related to his business management of *Aejisa*, a publishing company, to show how the complex was distorted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Korean War. Palbong's agony between art and business was consistently observed from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liberation period. The aspiration to stand out as a cultural businessman by using all availabl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s not only Palbong's personal desire but also a feature of the modern mainstream literary circle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vory tower complex' of Hoiwol, who steadily emphasized the academic criticism free from the literary coterie made him be immersed in intensive writing work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even to the point of publishing a book devoted to literature theory, entitled *Theory and Practice of Literature* in 1947. *Theory and Practice of Literature* was a theoretical book that expanded and systemized the essential contents of "New Development and Trend of Recent Literature Theory" (1934), which is known as his declaration of conversion. Being indicted for the publication of the book, Hoiwol was drastically intimidated and withdrew himself farther from the literary, academic and publishing communities. Hoiwol's consistent academic pursuit of aesthetic exploration of literature may not justify his pro-Japanese activities. However, if his deep-rooted ivory tower complex is left to sink into the black hole of interpretation based on the conversion and the pro-Japanese activities, his heritage of aesthetic theory may be permanently taken away from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